

순창군 '유용미생물은행' 건립 순항

2022년까지 240억원 투입 지상 3층 규모 장류특구단지에 조성 미생물 자원 정보 구축사업도 진행...발효미생물산업 선점 기대

순창군이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유용 미생물은행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미생물 자원 정보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먼저 유용 미생물은행 건립사업은 2022년까지 240억원을 들여 장류 특구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8000㎡(2400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용역사를 선정하고 내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용 미생물은행은 제대혈과 같이 어린 아이의 태반과 10~30대의 건강한 대변을 보관했다가 40대 이후 장내 미생물 균총

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다.

실제 우리나라 미생물 수입 시장은 발효 미생물 소재 수입에 6500억원, 장류·주류 미생물 440억원 등 총 70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분야 시장 규모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미생물 분야의 선점을 꿈꾸는 순창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유용 미생물은행을 비롯한 발효 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미생물 관련 산업 분야 공간을 이를 다양한 시설들을 투자 선도지구 내에 조성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2007년부터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 유용 미생물을 동·식물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난치성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연구원들이 자체 개발한 유용 미생물 상품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순창군 제공>

장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선진국보다 유용 미생물 산업 발전이 더뎠지만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4년부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



광양에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짓는다

2022년 총사업비 190억원 투입 익산산업단지에 건립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창업과 연구활동을 지원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정됐다.

광양시는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이 2020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022년까지 국비 13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익산산업단지 내에 지상 5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9,973㎡ 규모로 건립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분야 창업·연구 공간과 오피스텔형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아파트형 공장으로도 불린다.

시는 양극재,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재부품산업의 집적화와 기업들의 창업과 연구 등의 지원을 위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식

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결과 주변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녹지, 주차장과 연계가 용이한 익산산업단지 내 부지를 최종 입지 대상으로 낙점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라남도(혁신경제과)와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2020년도 정부예산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유치'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오고가며 건립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얻은 값진 성과다"며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여, 앞으로 우리 시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와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햇길 없는 섬' 군산 비안도 도선 취항

18일부터 본격 운항...주민 300여명 육지나들이 도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햇길 없는 섬,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비안도를 오가는 도선(渡船)이 18일 취항한다.

이 섬은 주민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난 17년간 해상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공사로 여객선 이용객이 줄어들자 선사가 이곳 항로를 폐쇄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형여선을 이용해 가력선착장으로 가는 위험한 육지 나들이를 하고 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선운항을 추진했으나 새만금행정구역 분쟁과 군산-부안 어민간 어업갈등 등으로 실마리가 풀

리지 못했다. 결국 비안도 도선운항 문제는 지난 2015년 국무조정실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됐고, 수년의 민원조정 끝에 지역정치권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지난해 말 합의가 이뤄졌다.

시는 총 5억2400만원 (도비 2억, 시비 3억2400만원)을 투입해 선박(비안두리호) 건조를 완료, 오는 18일 비안도어촌 계획관에서 취항식을 갖는다. 비안두리호는 11t급, 정원 14명(선원포함)의 FRP선으로 500마력 짜리 엔진을 탑재했다. 이 도선은 시범 운항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 황토현권역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전국 초·중·고생 테마형 수학여행 체험 활동 증가 기대

정읍시는 덕천면 소재의 황토현권역(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주관한 '2019년 제8차 농어촌인성학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 총 13개 권역·마을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를 통해 황토현권역을 비롯해 경기양평 여불리마을, 경남산청 지리산덕전강권역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는 2014년부터 6년간 황토현권역의 기초인프라 구축과 경관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등 농어촌 체험형 수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는 옛 황토현 수련원 부지를 활용해 센터를 신축해 공동체 활성화·인성교육·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경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며 "정읍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져 정읍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발전·지원 모색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지원 등 관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네스코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고창생물권관리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5년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에 가장 알맞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BR) 주민 아카데미'로 문화, 환경생태 등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목포해수청, 겨울철 선박화재 예방대책 마련

모바일항해안전문자서비스 등...위험물 운반선 특별점검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풍랑 등 기상악화,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월까지 3개월 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기상악화에 대비, 모바일 항해안전 문자서비스를 통해 선사에 기상·사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화재·폭발에 치명적인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설 연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하고 어구·어망으로 인한 항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

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포해수청 관할 해역에서는 최근 5년(2014~2018)간 450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겨울철은 22%인 1005건으로 발생 건수는 적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충돌·좌초·침몰사고가 많은 편으로 분석됐다.

장기표 목포해수청장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